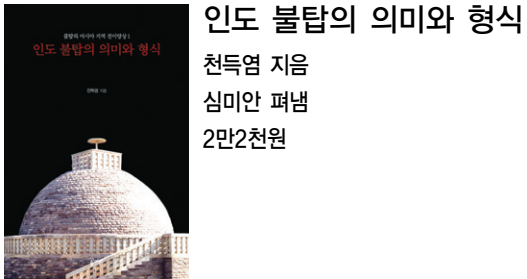


불탑은 '조형물' 아닌 진리의 '상징'



인도 불탑의 의미와 형식
천득염 지음
심미안 펴냄
2만2천원

기원전 5세기경, 인도에서 불교를 일으킨 부처님은 80세에 쿠시나गर 사라쌍수 밑에서 입멸에 들었다. 다비를 치르고 수습된 8말 4도의 부처님6 사리는 제천과 용중, 그리고 인도의 여덟 나라에 나누어 전해졌다. 부처님의 입멸은 불교도들에게 애절한 일이었다. 사리를 얻은 여덟 나라의 왕들은 각기 제 나라로 돌아가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기 위한 탑을 세웠으니 이것이 바로 불탑의 출발이다. 책은 인도 초기 불탑을 원리적으로 고찰한 연구서다. 총 일곱 개의 장으로 구성된 책은 불탑의 의미와 기원, 부처의 삶과 가르침, 인도 시원불탑의 의미, 형식의 변화, 변모 양상, 주변국으로의 전래 등을 다루고 있다.



부처님은 성도후 녹아원에서 첫 설법을 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한 대에크타피가 남아있다.

역 전이양상 1'이라는 부제를 붙인 것은 이 책이 인도 불탑의 형식과 의미, 그리고 전래 양상을 아우르는 총론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불탑의 의미는 무엇인지, 재료와 형태를 달리하여 왜 그러한 형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인도의 시원적인 불탑이 여러 나라와 지역을 달리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지, 그들의 조형성은 어떠한지, 이러한 의문들을 원론적 입장에서 해명해보고자 했다. 다시 말해 불탑의 의미와 형상, 양식상의 조영원리, 국가 간의 변모와 차이를 통해 불교문화유산의 원리와 보편성, 그리고 특수성을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안한 불탑은 부처님이 남긴 진신세계를 건조물로서 대신한 것이다. 인간으로서 부처를 떠나 법신(法身)으로 향하는, 이상적이며 절대적인 진리로 향하는 실체인 것이다. 따라서 중생들은 불탑을 숭배하면서 부처님에 대한 공양과 공덕을 동시에 쌓고자 했다. 또한 탑을 세움으로써 정각을 이루고 해탈을 이룰 수 있게 되길 바랐다. 중생들은 부처라는 위대한 성인이 설법한 진리를 깨닫고자 했고, 다른 세계로 가버린 그를 영원히 기리는 진리의 상징으로 그의 분묘인 탑을 성실껏 장엄하게 꾸몄으며, 부처의 실체로서 인식되는 탑을 만방에 세워 널리 진리를 편 것이다.

"여덟 나라의 왕들이 부처님의 유골을 봉안한 여덟 개의 탑을 세웠으니 이를 '팔분사리', '분사리', 혹은 '근본팔탑(根本八塔)'이라고 부른다. 이는 불교도들이 최초로 만든 의미 있는 조형물로서 불교미술사의 시작이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이들 여덟 개의 불탑은 대부분 위치가 정확히 알려지지 않다." 책은 그동안의 연구가 양식사와 시대사 연구에 치우쳤다면, 이제 의미론, 비교론적 연구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지적한다. 인도 불탑의 의미와 형식을 아우르면서 초기 불탑이 어떻게 주변 국가들에 전래되었는지를 비교론적으로 탐구하고 있다. '불탑의 아시아 지

화택에 갇힌 중생을 위해

한글 법화경

송월 스님 옮김 | 관음출판사 펴냄 | 2만원



부처님의 가르침에 순위와 경중이 있을 수 없었지만, (법화경)은 그 중 최고의 가르침(경전)로 불린다. 구마라집의 한역 <묘법연화경>을 한글로 풀이했다.

<법화경>은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한역되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지강량점의 <법화삼매경>, 축법호의 <살에본다리경>, 축법호의 <정법화경>, 지도근의 <방등법화경>, 구마라집의 <묘법연화경>, 사나굴다와 달마굽다의 <정품묘법연화경>이다. 그 중 현존하는 세 가지 번역본을 모두 (법화경)이라고 부르지만 구마라집역본이 가장 많이 유통되었기 때문에 보통 <법화경>하면 <묘법연화경>을 일컫는다. <반야심경>, <유마경>, <화엄경> 등 정토계 경전 등과 함께 초기 대승불교의 주요 경전으로 꼽힌다.

전통적인 해석에 따르면 본경의 28품은 '1~14품', '15~28품'의 두 부분으로 분류된다. 전반부는 '방편품'을 중심으로 일승(一乘)의 진리가 밝혀져 있으며, 후반부는 '여래수량품'을 중심으로 영원한 부처님, 곧 현실세계에 태어나 성도하신 석가모니부처님이 사십은 먼 옛날에 이미 성불했고, 본래 영원한 부처님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방편품'에서 부처님이 사리불에게 종래에 성문, 연각, 보살 등의 삼승이 있는 것처럼 교설한 것은 일승으로 인도하기 위한 방편이고, 일승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설하고자 하셨던 궁극적 진리라고 설한다.

'여래수량품'에서 카필라국에 태어나 붓다가야에서 성도한 석가모니부처님은 거짓 모습이고, 그 본체는 영원한 과거에 이미 성도를 이루고 그 이후 무량한 수명을 지녀 이 세상에 항상 실재하며 여러 가지 모습의 부처님으로 몸을 나타내면서 중생을 교화하시는 것이 부처님의 본체임을 설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부처님이 유일한 본체의 부처님으로 귀착한다는 사상은 후세에 들어서는 일반적이었지만 초기 대승불교 시대에는 본경에서 비로소 명확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방편품'을 중심으로 한 전반이 제법(諸法)의 통일을 지향했다면, '여래수량품'을 중심으로 한 후반은 제법의 통일을 지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글 법화경>에는 전반부에 '제복 삼장부터 큰 소리로 시작한다', '삼귀의', '개경계', '무량 의경 예찬'의 독송편과 후반부에 '천수경', '예불문', '반야심경', '업장참회 기도문'의 추가 경전 부록을 실어 법회 참석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경을 옮긴 송월 스님은 "연꽃 법화경은 사람마다 본디 갖추고 있는 지혜이기에 언어 문자로써 억지로 말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하신 까닭이 무엇인가. 이는 번뇌가 많은 중생들이 세간의 이치가 실상이며 현상으로 드러난 모습이 곧 요묘한 법인 줄 알지 못하므로, 불타는 집에서 아무 것도 모르며 불에 지지고 불기가 불을 앉아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고 불경의 취지를 말했다.

박재원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만덕, 만현	한지공헌지사
2	살이 값진 것은 사리자기 때문입니다	월호	마음의숲
3	뛰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용	용화
4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5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해민	샘앤파크스
6	지혜로운 삶(우학스님 신심경 강설)	우학	좋은인연
7	행복 119	성담	셀프칼처리서치
8	그대 보지 못했는개서암 큰스님 회고록	서암	정도출판
9	심지경오리지널화엄경산스크리트대장경 전자성	한국불교의심원학회	
10	행복에 이르는 열가지 습관	정명	비움과소통

www.unjusa.com
 운주사 (02)3672-7181

'보리심'을 여법하게 논하다

산티데바의 입보리행론

산티데바 지음 | 청정 스님 옮김 | 담원출판사 펴냄 | 1만2천2백원



2003년 겨울,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는 한국인을 위한 법회를 열어 주기로 했는데, 그는 법회의 교재로 <입보리행론>을 선택했다. 이때 25년 간 달라이 라마 곁에서 수행해 오면서 그의 법문을 들어왔고 많은 통역을 해온 저자가 우리말 번역을 하게 된다. 책은 2004년 발행되었던 국내 최초의 티베트본 <입보리행론>의 개정판이다. 달라이라마는 3년에 걸쳐 이 논서로 법문을 했다.

7세기 인도의 불교학자 산티데바가 저술한 <입보리행론>은 달라이 라마가 "보리심에 대해 실한 것 중 이보다 더 뛰어난 논서는 없다."고 말했다를 만큼 수많은 불교 논서 가운데서 보리심에 대해 가장 자세하고 광범위하게 논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리심의 귀한 보석이며 / 보리심을 아직 일깨우

지 않은 이들은 일깨우고 / 보리심을 일으킨 이는 기울지 않도록 하며 / 보리심은 항상 위로 위로 증장할지이다." 티베트의 다람살라에서는 달라이 라마가 집전하는 법회의 시작과 끝에 다음과 같은 티베트 계승을 함께 합송한다. <입보리행론>의 가치를 가장 높이 치는 곳은 역시 보리심을 수행의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티베트이다.

한국불교는 수행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유독 자신을 낮추는 하심(下心)을 강조하기 때문에 일체중생을 위해 깨달겠다는 '보리심'은 어찌하면 닦설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티베트를 비롯해 미얀마나 스리랑카 등 남방불교에서는 하심보다 보리심이 더 강조되는 수행이다. 티베트의 경우 11세기 <입보리행론>이 번역된 이래 티베트 대장경에 포함된 주석서만도 8종이 넘으며, 현재까지 모두 130여 종이 넘는 주석서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티베트불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책으로 인해 티베트 대승불교의 이념 및 수행과 관련된 광범위한 학문의 융성이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고, 티베트불교의 고유 수행인 로중(Lojong), 즉 '마음 바꾸기'라 불리는 새로운 수행법 역시 이 책을 기화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중국이나 한국불교에서는 최근까지 <입보리행론>이 수행자와 재가신도들 사이에서 그렇게 대중화되지 않았다. 하지만 <입보리행론>이 국내에 소개된 지 10년 만에 조계종에서는 2013년부터 <입보리행론>을 승가대학원의 정식 교재로 채택하는 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역으로 된 <입보리행론>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1. 선서(善逝)의 법신을 지나신 보살과 / 예경 받으실 모든 분께 정례하오며 / 보살의 율의(律儀)에 들이감에 대하여 / 경에서와 같이 간략하게 말하겠습니다."

책은 모두 10장의 917개의 계승으로 되어 있다. 제1장 '보리심 공덕 찬탄품', 제2장 '죄업 참회품', 제3장 '보리심 전지품', 이 세 장은 보리심을 일으키기 위한 내용이고, 제4장 '보리심 불방일품', 제5장 '호계정지품', 제6장 '인욕품'은 보리심이 없어도 되지 않도록 하며 항상 지키기 위한 내용이다. 그리고 제7장 '정진품', 제8장 '선정품', 제9장 '지혜품'은 보리심을 더욱 증장시키기 위한 장이다. 마지막은 '회향품'으로 마무리한다.

2013년 출간 10주년을 맞아 일부 번역 및 역주를 안스크리트에 맞춰 수정했으며, 이해하기 어렵거나 오역의 소지가 있는 곳은 문장을 삭제, 첨가했다.

박재원 기자

오직, 불법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

마음대로 앉아 죽고 서서 죽고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저서인 이 책은 생사를 자재한 분들의 앉아서 열반하고 서서 열반한 내력은 물론 그분들의 생애와 법까지 일목요연하게 수록해 놓았다.

부처님께서는 붓가의 이러한 열반과 신통을 명예욕이라고 하여 밖으로 돌추치 말라고 하셨다. (주각) 우리들 모두 생사를 초월하여 해탈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음대로 앉아 죽고 서서 죽기를 지재했던 이분들이 증명하고 있다. 이 책의 열반상들은 인류에게 있어서 큰 용기와 힘, 영원히 시들지 않는 행복이 될 것이다.

일러두기 중에서...

☎ 031-534-3373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저서 59권(30종)

바로보인 전통록 전5권 / 바로보인 무문관 / 바로보인 벽암록 / 바로보인 천부경 / 바로보인 금강경 / 세월을 복쳐로 세상을 복삼아 / 영원한현실 / 바로보인 신심명 /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30권 중 21권 / 앞뜰에 국화꽃 곱고 복산에 첫는 희다 / 바로보인 증도가 / 바로보인 반야심경 / 선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 바로보인 선가귀감 / 바로보인 법음선사 심경 / 주머니 속의 심경 / 바로보인 법성계 / 달다 / 기우묵동가 / 초발심자경문 / 방거사어록 / 실증설 / 하택신화대사 현종주 / 불조정맥(한영중 3개국어) / 바른 불자가 됩시다 / 누구나 공금한 33가지 / 108진참회문(한영중 3개국어) / 달마의 일할도 허락지 않는다 / 마음대로 앉아죽고 서서죽고